

“아~녕하세어~ 저오사니”

조 일 룬 (전도사, 경기 포천전원교회)

교인 중에 말을 어눌하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대로 생활을 하지만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남편도 그분과 마찬가지로 말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주일 예배 시간 30 분전에 “오늘 교회에 나오는 날 이예요. 어서 나오세요” 라고 전화를 드리면 꼬박 꼬박 주일을 거르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 나올 때마다 딸이 사 준 예쁜 개량한복을 입고, 얼굴에는 예쁘게 분을 바르고는 불그스레 옅은 화장을 하고, 입술에는 봄기운에 산이며 들마다 활짝 핀 진달래 색 립스틱을 바르고 새색시 마냥 곱게 단장하고 나와서 앞자리에 수줍게 앉아 계십니다. 매번 찬송을 찾을 때나, 성경을 찾을 때마다 옆에서 도와 주어야 하지만 열심으로 앉아서 알아들을 수 없는 발음으로 우리를 따라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합니다.

가끔씩 남편도 함께 교회에 나오는데 두 분 다 장애가 심해 제대로 사회 생활을 할 수가 없어 생활이 무척 어렵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마을 이장님과는 친척이라 이장님께서 애써서 나라에서 나오는 생활 보조금으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성경을 읽을 줄 몰라도, 찬송을 부를 줄 몰라도, 기도를 할 줄 몰

라도, 헌금을 할 줄 몰라도, 매주 예배를 마치고 “아~녕 하세어~ 저오사니~”하며 큰 목소리로 반갑게 나의 손을 잡아 줄 때마다 말은 제대로 못하지만 나의 손을 꼭 잡은 그분의 따스한 손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❷

쓸쓸하지 않은 빈자리

“교회에 한번이라도 나가셨던 분은 손들어 보세요?”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럼 이 교회(포천전원교회)에 한번이라도 와 보셨던 분 손들어 보세요?” 역시 한 분도 안 계십니다.

50여 가구 옹기종기 모여 사는 시골 마을에 교회가 세워진지 13년이라는 기간동안, 강산이 한번도 더 변했을 그 기간 동안에 지금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대부분은 교회에 한번도 와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작은 시골마을 이웃사촌이라 생각하고 오며가며 한 번쯤은 들려 볼만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고 하니 무슨 깊은 사연이 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 열 분이 예배에 참석 하셨습니다.

그동안 마을의 크고 작은 일과 마을 사람들 경조사에 빠짐없이 찾아다니며 일하는 저를 위해서 마을 노인들이 전도사를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교회 예배에 한번 참석하자는 마을 어르신 한 분의 제안에 아주 큰 결심들을 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것입니다.

난생 처음 드리는 예배라 서먹하고 어색해들 하셨지만 미리 복사

해서 나눠 드린 찬송가, 사도신경, 성경본문을 잘 따라 하였고 어린 전도사가 무슨 말을 하나 하고 설교도 열심히 잘 들으셨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반갑게 인사들 나누고 모두가 돌아가신 자리는 텅 비어 있었지만, 13년 만에 어쩌면 주인이 될 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맞이한 교회의 빈자리들은 그렇게 쓸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❷

작은 소자로 오신 주님

오전에 교회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말이 손님이지 사실은 도와 달라고 온 사람입니다. 곁의 행색이야 멀쩡하고 말쑥했지만 벌써 여러 날을 주인 없는 빈 농가에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째 밥을 먹지 못했단가요. 함부로 문 앞에서 그냥 가시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웬지 그렇게 해서는 죄를 짓는 것 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 앞에 잠깐 기다리게 한 후 천 원짜리 몇 장을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돈을 손에 쥐고 연신 고맙다는 말과 함께 문 앞을 나서면서 혹시 먹을 것이 있으면 조금만 달라고 합니다. 그 말에 그저 못 이기는 척 전날 마을 할머니 한 분이 가지고 오신 떡과 지방 전도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면서 사오신 롤 케익, 그리고 딸 주려고 사 두었던 우유 하나를 봉지에 싸서 주었습니다.

그렇게 교회에 오신 분을 보낸 후 가만히 생각해 보니 껍이나 딱 하기도 하고 안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 오죽이나 급했으면 허름한 시골 작은 교회에 도와 달라고 왔을까 하고 생각하니 미안한 생각이 마음 가득합니다. 조금은 불편해도 차라리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차려 드릴 것을.....

문득 간디와 버금가는 현대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이자 사회 개혁가인 비노바 바베의 전기에 나와 있는 한 대목이 생각납니다.

거지가 문간에 찾아오면 어머니는 거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는 일이 없었다. 어느 날 체격이 건장한 거지 한 사람이 찾아왔고 어머니는 그에게 적선을 베풀었다. 나는 못마땅하여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 사람은 아주 건강해 보여요. 그런 사람에게 적선을 하는 건 게으름만 키워주는 거라구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그들에게도 좋지 않은 거예요. 순수한 선물은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장소에서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구요”

어머니는 나의 말을 들으시고 아주 차분하게 말씀하셨다.

“비냐, 우리가 무엇인데 누가 받을 만한 사람이고 누가 그렇지 못한 사람인지 판단한단 말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문간에 찾아오는 사람이면 누구든 다 하느님처럼 존중해 주고 우리의 힘이 닿는 대로 베푸는 거란다.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니?”

어쩌면, 아주 어쩌면 사람을 못내 그리워하는 시골 작은 교회의 우리 식구에게 주님은 그렇게 작은 소자로 다녀가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❷